

보성, 조성농공단지 문화센터 건립

전남도 유일 산자부 공모 선정

실수요자 중심 총 48억원 투입

경영환경·근무여건 개선 기대

보성군이 최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2009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조성농공단지내 사업비를 투입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는 38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다. 보성군은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조성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전남도 기반산업과와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성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복합문화센터 구상안은 1층에는 멀티 오피스, 구내식당, 북카페, 관리사무소, 2층에는 주거형 원룸 13실과 체력단련실을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 신설로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는 농공단지 내 도로와 공원 정비,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낮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조성면에 신규로 건립하고 있는 조성 제2농공단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지원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차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보성군의 부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보성군은 농공단지가 100% 분양돼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을 만큼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은 2021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맞춰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그동안 개별사업 공모로 추진되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4개의 사업을 2개 이상 묶어서 3년간 지원한다. /보성=백종두 기자

순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루 4만3,960원 지급

순천시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동안 모형 3의 유형을 적용해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하루 4만3,960원씩 의료가 용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신청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이며,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에서 접수 및 문의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요양한 후 일터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시가 아열대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아열대과수 현장 해결책 모색

광양시가 최근 아열대과수 농가 8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재배 작목이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2회 이상 전문가를 초빙해 생육단계에 필요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가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아열대과수 4개 품목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된 아열대과수 현장 컨설팅은 광양시 아열대과수연구회 8명을 대상으로 만감류 재배기술 이론교육과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적과,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을 지도한 현장 컨설팅 교육을 병행해 추진했다.

/권동현 기자

여수, ‘착한 가격업소’ 110개소로 확대

여수시가 최근 큰 상승폭을 보이는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광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 84개소를 110개소까지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 위생·결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설비, 기자재, 소모품 등 물품 ▲쌍쌍여수 먹개비 가맹점 등록 시 착한 가격업소 아이콘 표시 ▲입식데이블 지원 사업 가점 및 우선권 부여 ▲여수맛, 여수야 어플 홍보 등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 여수제

일신협은 지난달 29일부터 고무장갑과 지퍼백, 주방세제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어부바’ 박스를 착한 가격업소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5%를 넘어섬에 따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 합동 물가안정 간담회,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착한 가격업소 확대를 비롯해 건전한 소비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선발해 지역물가 상승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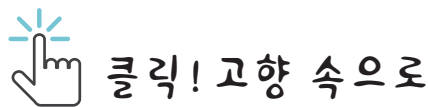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구례축협, 하나로마트 종합평가 ‘경영대상’

구례축산농협이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 2021년 경영종합평가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구례축협이 농협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가 주관하는 경영종합평가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30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는 전국 2,100여개의 하나로마트 중 연매출 70억 원 이상의 매출액 상위 농협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구례축협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구례군 최초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품질보증제 등을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0년도 구례지역의 집중호우 및 상류 댐 방류로 하나로마트가 침수돼 복구가간 매출이 크게 감소되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불황과 업종 내 경쟁심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객친화적인 마케팅을 펼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순천소방, 전남도 기술경연대회 구급 1위

순천소방서가 ‘2022년 전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남소방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화재, 구조, 구급, 최강소방관, 화재조사 5개 분야 325명의 선수가 참여해 진행됐다.

순천소방서 구급분야 참가팀(소방장 오성환, 소방교 조계진, 소방사

임원진, 소방사 이현미)은 1차 전문심장소생술과 2차 다수사상대응술에서 완벽에 가까운 응급처치를 선보였다.

박상진 서장은 “현장 활동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려 훈련한 모든 대원과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구급대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장애 인식 개선교육

보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포럼 공연을 통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술포럼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이뤄진 공연팀으로 퓨전

댄서W&W, 어쿠스틱 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대표는 “공연을 통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경찰, 연홍도 공동체 치안 간담회

고흥경찰서가 최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재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와 연홍도 진명회 도서지킴이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연홍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홍도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CCTV 증설 등 주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진명회 마을이장은 “경찰관과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해 도서치안 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진준영 기자